

에디슨의 特許紛爭

—企業經營의 虛가 盲點—

에디슨은 白熱電球을 發明하여 世界到處에서 10月21日을 電燈記念日로 定하고 行事까지 벌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特許管理에 애덕은 사람도 드물것이다. 그는 1878년에 自己가 發明한 백열전구를 生産하는 이른바 에디슨電球株式會社를 設立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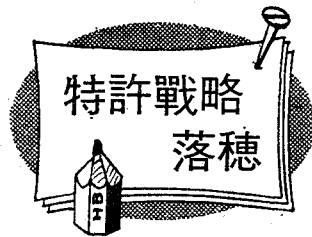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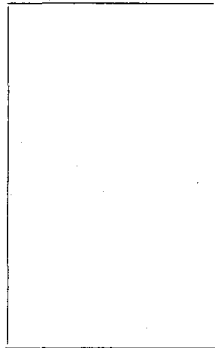
資本金은 仔細하지 않으나 總發行株式은 3,000株이고 그 가운데 2,500株는 에디슨이 所有했고 2년 뒤인 1880년에는 發明이 完成되어 매우 事業의 展望이 보이는듯 하여 자본을 3倍로 늘렸으나 그 增資株式의 大部分을 모오간과 웨스틴유니온이 다 買受하였다.

또한 에디슨은 증자후에도 發電機施設과 전구시설을 擴張하기 위하여 자기의 持株를 대부분 賣渡하였고 이때문에 6년 후인 1884년에는 많은 收益이 있었으나 이미 회사의 支配權은 大株主들의 손아귀에 넘어 가고 말았다.

그때 소오여와 맥심이 에디슨의 전구에 관한 特許를 侵害하고 있어 1885년 5월에 에디슨전구회사는 警告狀을 보냈고 이어 맥심(美國電燈會社)과 소오여 및 맨이 經營하는 合同電燈會社등을 相對로 侵害訴訟을 提起했다.

그러나 센트루이스聯邦法院은 에디슨의 權利는 根據가 弱하다고 原告인 에디슨의 敗訴를 判定했다.

이어 上級法院에 上訴했으나 이때는 웨스틴하우스가 美國電燈會社의 支配權과 合同電燈會社의 特許權을



買受하여 전구를 생산하기로 決心하고 오히려 에디슨회사의 製品보다 싸게 팔겠다고 宣言하였다. 그는 선언과 더불어 백열전구의 생산 판매에 熱中하였다.

따라서 1890年代에는 電球販賣實績이 에디슨회사가 1位, 톰슨·하프턴회사가 2위, 다음이 웨스틴회사가 3위였다.

하프턴과 웨스틴하우스는 에디슨이 갖고있는 권리 이외의 모든 백열전구특허권을 매수하여 서로 協力하면서 에디슨紛爭에 對處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에디슨이 웨스틴하우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提訴하였다.

피츠버그의 巡迴法院은 1889년에 에디슨의 勝訴를 判定하였으나 이번에는 웨스틴하우스가 抗告하였

다. 그러나 1891년 7월14일 카본·필라멘트전구의 특허는 에디슨의 先發明이 分明하다고 判定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때까지 에디슨이 소송에 사용한 經費는 勿驚 200萬달러가 넘었다.

또한가지 特記할 것은 에디슨이 자기의 研究所를 訪問하여 對話를 하거나 觀察하는 사람은 반드시 名簿를 작성하여 두었고 研究日誌도 備置하였으므로 法廷 鬭爭에서 많은 參證이 되었다. 특히 美國은 先發明主義를 採擇하고 있으므로 日誌등이 큰 몫을 한것이다.

이때 에디슨의 백열전구의 특허권은 재판에서 勝訴한 날부터 2년 밖에 남지 않았었다. 그래서 迂餘曲折끝에 1891년에 톰슨·하프턴회사와 에디슨·제네랄·엘렉트릭회사(에디슨이 이 이전에 合併한 企業體)와 합병하여 社名을 에디슨을 빼고 제네랄·엘렉트릭(GE)으로 改稱하는 동시에 에디슨은 물론 그直系人員들은 거의 내쫓겼다.

이러한 悲運을 겪은 에디슨은 自嘆하기를 「特許法에는 正義가 없다. 特許證은 소송에의 招待狀이다. 狡猾한 模倣者는 主要部門을 살짝 바꾸어서 특허를 避하고 法廷에서도 요령껏 回避한다. 따라서 特許廳이나 法院을 信用할 수가 없다. 特許制度따위는 없어도 그만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에디슨은 특허분쟁에는 이겼지만 企業經營의 拙劣로 倒産하고만 史證이 되고 있는 것이다.